

# 원주마을 이야기

제156호



2025년 8월호

## 우리는 시니어 활동가!

완주 곳곳에서 시니어 활동가들의 활약이 시작됐다. 생태텃밭 가꾸기부터 주가·건강 돌봄, 아이들 학습 지원까지, 이들의 손길이 마을을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시니어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소득뿐 아니라 세로움에 도전하는 즐거움과 사회와의 연결감을 주고 있다. 이제 시니어 일자리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관련 기사 2~7면

시진설명: 삼례 초등학교 생태텃밭에서 시니어생태텃밭관리사들이 웃고 있다.

● 농촌주민생활서비스공동체 더불어해봄... 8P ● 소양 환경민정 김경숙, 서영순씨 ... 9P

● 삶의 풍경 원소농마을 김정희 이야기... 10P ● 완주의 예술인 서예가 김채리 ... 12P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하는 **시니어 일자리사업단**

## 경험과 능력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이하 양지뜰)의 시니어 일자리사업단은 다양한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단은 봉동, 이서, 소양 등 완주군 전역을 아우르며 행정 지원부터 생활 조사, 아동 학습 보조, 텃밭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어르신들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며 동료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즐겁고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더불어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는 주민들과의 교류는 사회적 고립을 막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 사람을 잇고, 마음이 자라는 생태텃밭

비가 한바탕 쏟아졌던 8월 5일 이른 아침, 완주 삼례초등학교 생태텃밭에서 동료들과 함께 작물을 살피던 심주택(77) 씨를 만났다. “집이 학교 바로 앞이에요. 늘 아이들이 텃밭에서 뭐가 하는 걸 지켜보다가, 내가 거들면 좋겠다 싶었죠.” 40여 년 밭농사 경력 덕분에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의 소망은 2년 전 시니어 생태텃밭관리사로 이어졌다.

시니어생태텃밭관리사는 농사경험 및 생태활동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들이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텃밭을 조성하고, 학생들과 함께 채소를 심고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는 생태 교육과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완주군 내 27곳 학교와 시설에서 80명의 어르신들이 작물 재배와 농사 체험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례초에는 심주택, 양정욱, 한창수, 정유보, 김서철, 이상금 씨까지 6명의 시니어활동가가 학생들과 텃밭을 일군다. 지난 6월에는 알감자를 함께 수확했고, 고추와 방울토마토, 가지, 오이도 아이들과 정성스레 키웠다. 심주택 씨는 “수확한 감자를 교실에서 다 같이 구워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다 배부르다”고 미소 지었다.

활동가들이 일을 하며 가장 신경 쓰는 건 모두의 안전이다. 농작업 과정 자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작물의 안전함을 위해 동료들과 농약을 치지 않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농법을 의논한다.

양정우(74) 씨는 “일하는 매순간이 보람”이라고 말한다. “은퇴 후 쉬기만 하다가 활동량이 늘어

### 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	사업단명(참여자 수)	사업내용
노인 공익활동사업	시니어환경지킴이(120명)	마을, 공원 등 공공시설 정원 가꾸기 및 환경 미화 활동
	우리동네 폐의약품수거단(60명)	지역 내 아파트, 마을, 공공시설, 상가 등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수거 활동, 폐의약품 회수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수거한 폐의약품은 분리하여 보건소에 전달
노인 역량활용사업	시니어 생태텃밭관리사(80명)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등 파견되어 생태 학습장 조성, 작물 재배 및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시니어 주거복지지원단(26명)	지역 내 취약계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지원 및 독거노인 응급벨 점검 활동
	교육시설학습보조(25명)	아동교육·돌봄시설에서 학습이 느린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 등 지원
	우체국 행정업무지원(27명)	우체국 안내 서비스, 소포 및 우편물 보조 등 노인이 수행 가능한 행정업무 지원
	전통시장 시니어지원단(13명)	전통시장 내 상가 화재안전점검, 전통시장 현황조사, 물품구매 동행 및 배송서비스, 상가지원 활동 등 수행
	시니어행정업무지원(57명)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완주군 내 공공시설 행정도우미 활동 지원
	시니어건강지킴이(40명)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 중 만성질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체크 및 운동, 식생활 관리, 인지프로그램 등 건강돌봄 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0명)	노인일자리 사업단 행정업무 보조 지원 및 활동현장 안전 모니터링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 홍보 활동 지원
공동체 사업단	시니어 주민생활조사사업(30명)	지역내 행정서비스, 정주여건, 복지수요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현황 조사 사업 지원
	양지뜰 식당(10명)	한식 및 분식 음식점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완주군 산업단지 근로자 반값 아침 식사 지원사업
	교육서비스 양지뜰교육원(10명)	노인 강사 양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 강사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교육 및 프로그램 키트 제작·판매, 노인 체험 교육

은퇴 전 경험, 소질 발휘해  
행정·교육·환경·농업·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왼쪽 위부터\_ 우리동네 폐의약품수거단, 주거복지지원단, 시니어건강지킴이, 교육시설학습보조 활동가, 시니어생태터발관리사들의 활동 모습.

나니 몸도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면 세상 부러울 것 없죠. 같은 동네 분들과 일하다 보니 많이 친해져서 한 달에 한번 단합회도 열어요. 이 사업 덕분에 여러모로 즐거운 일이 많아졌어요,”  
방학에는 텃밭 작물을 돌보고, 비 온 뒤 흐트러진 학교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일과다. 곧 다가올 가을엔 김장배추, 무, 쪽파 심을 계획도 세워왔다. 심주택 씨는 “벌써부터 텃밭을 시끌벅적하게 만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웃었다.

**몸에 익은 지혜, 일터에서 되살리기**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 완주우체국 물류센터에서는 손상영 어르신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다. 한때 행정직에서 쌓은 경력이 빛을 발해 팀장 역할을 맡아 동료들을 이끌고 있다. 번지수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는 노하우가 쌓여 업무는 점점 능숙해졌고 “처음엔 헛갈렸는데 이제는 눈감고도 할 수 있죠.”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소양면 도도한늘이터 지역아동센터 교실에선 임석준, 이남선 어르신이 아이들을 맞

이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별 맞춤 수업을 준비하며 특히 수학 복습에 집중하는 아이들과 함께한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 임 어르신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명에 신경 쓰고 이 어르신은 놀이와 공부를 병행하며 아이들과 친근하게 소통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이처럼 양지뜰협동조합은 어르신들이 각자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과 나눔, 그리고 삶의 보람이 일터 구석구석에서 피어난다. ☺

우리동네 폐의약품수거단\_ 김윤수-이정희 부부 활동가

# 폐의약품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우리가 다 알려드려요

삼봉 비엘로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김윤수(79)·이정희(73) 씨 부부는 '우리동네 폐의약품수거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6월부터 한 달에 열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두 사람은 "주거지 근처에서 2인 1조로 일할 수 있어 즐겁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주민이 버린 폐의약품을 종류별로 분류해 보건소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을 맡는다. 정희 씨는 "이전에는 약국에만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지만, 활동을 시작하며 폐의약품 분리 방법과 폐기 과정을 제대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부부가 폐의약품수거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지역 노인일자리를 찾으면서부터다. 가까운 곳에서 자동차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점과 2인 1조 근무가 이 부부의 참여 동기가 됐다. 교육을 통해 폐기 의약품의 정의와 안전한 처리법, 안전한 근무를 위한 지침까지 배웠다. 초기에는 홍보 위주로 활동하며 띠를 두르고 캔

페인도 펼쳤다. "주민들이 알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할 때 가장 뿌듯하다"는 정희 씨는 "활동 초반보다 요즘 점점 더 많은 이웃이 폐의약품을 분리해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 젊은 세대가 많은 아파트 특성상 직접 설명할 기회가 적어, 주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홍보물이 부족해 모든 세대에 정보를 전달하기 힘든 점 역시 고민이다. 윤수 씨는 아파트 방송이나 안내문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수 씨는 폐의약품수거단 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높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소중한 사업"이라며, "홍보 전단지가 더 널리 배포되어 더 많은 이웃이 안전한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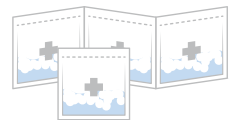
왼쪽부터 이정희, 김윤수 활동가

##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

### 1 분리배출 방법

#### 가루약

포장지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배출



#### 알약

겉포장(종이)만 분리하여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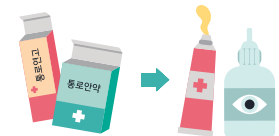
#### 물약

마개를 꼭 잠그고 용기째 배출



#### 연고, 안약 등

겉포장 제거 후 용기 그대로 배출



### 2 배출 장소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 3 폐기 과정

수거단이 보관해둔 폐의약품을 1~2주에 한 번 보건소로 전달 → 전문 업체에서 안전하게 소각 처리



왼쪽부터 서선례, 정순례 활동가



왼쪽부터 한용희, 조재운 활동가

시니어건강지킴이\_ 서선례, 정순례 활동가

건강은 살뜰하게 마음은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챙겨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은 날씨에도 삼례 지역 어르신 댁을 찾아가는 서선례(63), 정순례(64) 활동가의 발걸음은 한결같다. 올해 3월부터 시니어건강지킴이로 활동하는 두 사람은 매주 10가구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살피고 맞춤형 운동을 지도한다. 대부분 홀로 지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체온·혈압·혈당을 점검하고 건강상태에 맞춘 체조와 영양·식생활 관리, 퍼즐·종이접기 같은 인지 강화 프로그램까지 세심하게 진행한다.

여름철에는 건강 변화를 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방문이 어려운 날에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 “운동과 식습관을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가족처럼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정순례 씨의 설명처럼, 이들의 돌봄은 건강은 물론 정서까지 아우른다. 실제로 무릎 수술 후 걷기조차 힘들었던 한 어르신이 꾸준한 운동 지도 덕분에 다리 부기가 줄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두 활동가는 “이 일이 주는 보람을 다시 느낀다”고 전했다.

활동가들과 5개월 전부터 함께해온 대상자 신필선(80) 어르신은 “우리 집에 오지 않는 날에도 전화로 안부를 챙겨주니 고맙다”며 웃었다. 이에 활동가들은 “어르신은 곧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때문에,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도 치유와 성장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신체적·정서적 돌봄지원이 이어질 길 소망한다. “당뇨 환자를 위한 맞춤 식단과 계절·개인 상황에 맞춘 운동 프로그램 등 지원이 확대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어요. 어르신을 돌보며 우리도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주거복지지원단\_ 한용희, 조재운 활동가

응급벨 점검·수리·재교육까지  
농촌 1인가구의 버팀목

지난 5일, 이서면 한 마을 골목 안쪽, 어르신이 두 손을 흔들며 한용희(79), 조재운 활동가를 반갑게 맞이했다. 두 활동가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응급벨과 화재·동작·출입문 감지기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응급벨 사용법을 친절하게 안내했다. “이렇게 버튼을 직접 눌러보셔야 잊지 않으세요.”라며 어르신 손을 이끌어 시연까지 도왔다. 안부를 챙기고 아침 식사는 거르지 않으셨는지 묻는다.

주거복지지원단은 올해 처음 출범한 노인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완주군 내에서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완주군의 요청에 응하여 응급벨과 다양한 안전기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배터리 교체나 기계 수리도 한다. 군청에서 작동이 안 되는 가구를 확인하면, 해당 가구를 우선 방문한다. 응급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다.

조재운 활동가는 “배터리 교체나 전원 연결 확인 등 기계 수리를 통해 응급벨이 항상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직접 응급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재교육하는 일이다. 활동가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며 응급벨이 1인 가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필수적인 기기인데, 설치 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어르신이 응급벨 사용법을 잘 모르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용희 씨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기기를 점검하며 어르신 말벗도 되어드리는 일이 무척 의미 있다”고 말한다. 매달 한 번, 어르신을 뵈 때마다 삶의 의욕이 살아나는 것 같으며 웃은 그는 “응급벨 설치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전기와 배관 수리 같은 실질적인 주거복지 지원도 추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지원\_ 백성기 활동가

쾌적한 시장 만드는 친절함 손길



봉동 생강공시장에서 시장지원 업무 중인 백성기 활동가

전통시장 시니어지원단 백성기(70) 씨는 쾌적한 봉동 생강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골목을 부지런히 누빈다.

“아침 7시부터 3시간씩 일해요. 쓰레기도 좁고 주차장 안내도 합니다.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강도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시장이 깨끗해지는 걸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전통시장 시니어지원단의 역할은 단순히 청소와 안

내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돕고 상인들과 방문객 사이에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한다. 덕분에 봉동생강공시장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노동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면서 건강해지고 연금도 받고 저축도 하니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여행도 가보고 싶고요.”



왼쪽부터 정경자, 성유봉 활동가

### 시니어 주민생활조사\_ 성유봉, 정경자 활동가

#### 하루 3시간씩 생활실태 등 설문조사

## 직접 대화하며 살펴요

한여름 뜨거운 햇살이 마을을 내리쬐던 완주군 이서면 원이성마을의 성유봉·정경자 부부를 찾았다. 평소 시니어 주민생활조사 활동가로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이웃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두 사람은 이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조사 활동은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우체국, 마을 입구, 파크골프장 쪽을 중심으로 다니지만 이서면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 다른 마을로 가려면 20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안전을 위해 항상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죠.”

성유봉 씨는 “투병 중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약속했어도 지키지 않거나 조사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소를 찾아가도 네 번 정도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정경자 씨는 “생활 실태나 고독사 위험군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누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부부는 한 달에 20일,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주민들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일하는 동안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뿐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외곽 마을까지 발걸음을 옮긴다. 매달 한 차례 받는 교육은 조사 기법과 안전 수칙, 주민 응대법, 피해 예방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성유봉 씨는 “교육 내용이 잘 짜여 있어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덕분에 조사원으로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 일이 제2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한데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게 큰 활력소가 된다”며 활짝 웃었다.

부부는 경제적인 수입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와 의미 있는 활동이 생활에 큰 기쁨과 활력을 준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군에서 하는 일이니 믿고 참여하자’는 인식이 널리 퍼져, 조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지역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더 많은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_ 명심 활동가

#### 일하는 어르신들의 실질적 지원 담당

## 활력과 소통의 기쁨 느껴

한여름 아침 7시 30분, 봉동 명작유치원 텃밭. 명심(73) 씨가 시니어생태 텃밭관리사들의 활동 현장을 살피기 위해 나와 있었다. 그는 봉동일대 15곳의 수요처를 방문해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에 업무를 전달하고, 안전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관리단 역할을 맡고 있다.

“처음엔 시니어클럽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양지뜰협동조합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4월부터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은 2명씩 파트를 나눠 30개가 넘는 업무 현장을 관리하고 있죠.”

명심 씨는 행정업무 외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관리와 근무 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여름에는 무더위로 어르신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하는 게 참 즐겁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활동을 통해 활력도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이 큼니다.”

그의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주 5일, 한 달에 20일 정도다. “7시 30분쯤 와서 준비하고 회의도 하면서 동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명심 씨는 텃밭을 가꾸는 분들과 채소를 나누며 인간적인 교류도 즐긴다. “복지관 강사 경험 덕분에 어르신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는 노인일자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주로 집에 혼자 계시는 시니어들이 정기적으로 나와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해요. 일자리가 작년보다 늘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양지뜰이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시니어들이 좋은 일자리에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양지뜰 대표님의 열정과 헌신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명심 씨의 말처럼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통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덜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완주군 시니어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길 기대한다.



현장에서 소통 중인 명심 활동가

교육시설학습보조\_ 임석준, 이남선 활동가

## 전문성 쌓아온 퇴직자들에게 사회에 기여할 좋은 기회

소양면 도도한늘이터 지역아동센터. 교육시설학습보조 활동가 임석준, 이남선 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교사 경험을 살려 다시 '배움의 자리'로 돌아와 초등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다. 특히 언어와 문화에 적응 중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아이들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스스로 읽어낼 때 그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몰라요." 두 사람의 얼굴에도 그 반짝임이 윙글하고 있다.

### Q.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임석준** 6학년, 3학년 아이들의 수업을 돕고 있습니다. 상급반은 영어와 수학, 하급반은 읽기·쓰기·수학 복습 위주로 지도합니다. 선행학습보다는 복습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이남선** 4학년 학생 1명과 5학년 학생 6명을 맡아 수학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진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 Q.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임석준** 구구단도 못 외우던 베트남 출신 아이가 있었어요. 집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 반복 교육을 했더니 7월쯤엔 혼자서 외우더군요. '할 수 없다'던 것을 같이 해냈을 때 정말 기쁘고 보람찼습니다.

### Q. 이 활동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임석준** 30년이 넘는 교직생활 후 3년간 쉬었는데 계획적인 생활이 사라지니 나태해지더군요. 이

활동을 하면서 다시 일정과 목표가 생기고 아이들을 대하며 생활에 긴장과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남선**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 Q.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임석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데 특히 신경 씁니다. 학년마다 사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죠. 교직 시절에는 주로 고등학생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훨씬 더 쉽고 구체적인 예시와 비유를 들어야 하다 보니 수업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남선** 교직 현장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아이들을 만나 보니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자기 생각을 스스로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학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아이들의 생활 모습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음을 실감하며 변화된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학습을 이끌어갈지 늘 고민합니다.

### Q. 이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램은요?

**임석준** 급여보다 더 큰 가치는 재능 기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퇴직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선** 아이들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는 일에 제 경험을 아낌없이 쏟아 붓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완주우체국에서 행정업무 지원 중인 손상영 활동가

우체국 행정업무지원\_ 손상영 활동가

## 우체국 물류의 숨은 베테랑

8월 5일 오전 10시, 완주우체국 물류창고.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역별 라벨이 붙은 우편상자가 줄지어 지나간다. 손상영(66) 씨는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번쩍 들었다 놓으며 봉동, 삼례, 용진, 소양, 완주산단 5개 지역의 우편물을 순식간에 분류한다.

"번지수만 봐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압니다. 이걸 새로 온 분들이 헛갈리기 쉬운데 하다 보면 감이 잡히죠." 그의 목소리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여유가 묻어난다.

손 씨가 우체국과 인연을 맺은 건 2023년, 방송과 지인을 통해 시니어클럽 사업을 알게 되면서다. 처음에는 봉동에서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숙련도를 인정받아 팀장 직함까지 맡았다. "경력자보다 나이는 젊고 숙달이 되다 보니 팀장 역할을 하게 됐죠."라며 웃는다.

현재 그의 하루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주 5일 근무로 채워진다. 짧지만 집중도 높은 시간 동안 우편·택배 물류 작업, 반송·폐기 처리, 파쇄 업무까지 맡는다. 2명이 하던 일을 올해는 인원이 늘어 4명이 나뉘 하되 물량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집에만 있으면 빈둥거리게 되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와 일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새로운 경험도 되고, 하루가 훨씬 활기차요." 그는 시니어 일자리의 장점을 '삶의 활력'이라고 강조한다.

"예전엔 60대면 은퇴였지만 지금은 70대 후반까지도 일해요. 젊은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고 싶어요."



임석준 활동가



이남선 활동가



## 농촌지역 통합돌봄의 든든한 울타리

농촌주민생활서비스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하 더불어해봄)은 소양면에 위치한 4년 차 사회적농장으로,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신체활동, 먹거리 돌봄 등 다양한 농촌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 자립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며 시작된 돌봄공동체는 농사일과 여가활동을 결합해 농장을 단순한 일터가 아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주체로 발전했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노인교실은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다. 최근 한 수업에서는 연보라, 진한 보라, 분홍빛 등 다채로운 스타티스로 화관을 만드는 원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각자 꽃을 골라 화관을 만들 때면, 처음에는 생소해서 머뭇거리던 어르신들도 손에 익자 서로 돕고 교환하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완성된 꽃 화관을 머리에 써보고 “옷 색깔과 똑같아서 마음에 든다”며 기뻐하는 모습은 공동체 활동의 따뜻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간식과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이어져, 어르신들은 새로운 체험과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더불어해봄의 돌봄서비스는 돌봄반장의 주도아

래 각 분야 전담 강사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임평화 대표는 최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얻은 성과로 ‘공동체적 돌봄체계 발전’을 꼽았는데, 삼덕교회를 중심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이 지역공동체 돌봄체계로 확장된 것이다. 부녀회가 식사를 준비하고, 예은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 이동을 지원, 소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양면의용소방대가 주차 및 서빙을 도맡는 등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소양상생복지센터가 공유주방 마련을 계획하며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통합돌봄정책에 발맞춰 지자체와 복지기관, 농촌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적농업 분야에서는 장애인 요양시설 ‘은혜의 동산’ 참여자들이 매주 온실 채소 수확과 요리에 같이 참여하는 등 농장이 다양한 취약계층의 일·놀이·사회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사각지대 어르신 반찬 나눔을 준비 중이고, 냉장고와 집기 등 지원 환경도 보강할 예정이다. 예산 지원 감소 상황에서도 자체 농작물 판매, 자원 연계를 통해 자립 방안을 모색 중이다. 더불어해봄 임평화 대표는 “앞으로도 더불어해봄이 농촌지역사회 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가족과 같이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

지역가족과 같이 오래  
함께할 공동체가 되는 게 꿈

임평화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주소\_ 원주군 소양면 원암로 164-19  
대표\_ 임평화

“소양면의 모든 마을 돌며  
쓰레기 배출 방법, 혜택 등 교육  
동상 마을서도 교육 요청받아 준비 중  
알려줘 고맙단 말엔 울컥하죠”

우리는  
환경쟁이입니다!



환경쟁이장 서영순 씨

환경쟁이장 김경숙 씨

김경숙 씨(68·회룡마을 이장)와 서영순 씨(66·황운마을 전 부녀회장)는 소양면 환경반장이다. 평소 마을 일을 돌보며 농촌 쓰레기 문제에 심각성을 느꼈던 두 사람은 지난해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가 마련한 소양면 환경반장 양성교육에 참여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게 환경반장의 주된 역할이다.

경숙 씨와 영순 씨는 지난해 24개 마을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46개 마을주민을 만났다. 소양면에 47개 마을이 있으니 거의 다 만난 셈이다. 완사넷은 이들 성과를 살펴 소양면이 유일한 환경반장을 다른 읍면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활동 중인 소양면 환경반장은 8명이다. 2인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김 씨와 서 씨가 한 팀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12개 마을을 돌았다.

환경반장에 참여한 계기가 궁금하다

**김경숙** 동네 일을 맡고 보니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다.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는데 문제 해결을 고민해도 가진 지식이 알아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자세한 지식이 필요한데 매번 환경미화원분들에게 여쭙볼 수도 없고 난감하던 차에 환경반장 교육 현수막을 보게 됐다. 그게 계기가 됐다.

**서영순**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저도 현수막을 봤다. 처음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다니는 건가? 힘들겠는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평소 친했던 김 이장님이 한번 해보자고 연락이 와 참여하게 됐는데 보람이 크다.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교재가 있다. 사진 등을 같이 보며 동네 쓰레기 실태와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분리배출 방법을 설명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

을 알려준다. 몸풀기 운동도 하고 퀴즈도 풀면서 재밌게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 반응은

처음에 엄청 떨었다. 나이든 어르신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죄송하고 불편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은 생각도 많이 했다. 주민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 주셨다. 응원해 주시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다. 그럴 때마다 울컥하곤 했다.

쓰레기 관련해 마을 문제가 뭐였나

수거일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였다. 도로변에 항상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마을별로 한 주에 두세 번 분리수거일이 있다. 회룡이나 황운마을은 큰길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수거한다. 이걸 안 지켜 내놓게 되면, 즉 월요일 아침이 지나서 내놓으면 그때부터 길가에 쓰레기 더미가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있게 되니 차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분리도 안 된 쓰레기를 보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환경반장 활동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동안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해 군에서 지침이 내려왔지만 주민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늘상 살아오던 방식이 있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는 걸 좋아하잖나 싶었다. 근데 환경반장이 되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 모아놓고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설명했더니 성질 한 번 안 내고 다 받아들이셨다. 도로변 쓰레기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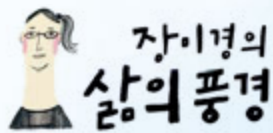
지난해 진안 봉곡마을에 갔었는데 너무 잘해서 충격받고 왔다. 주민들의 환경 의식이 높았고 쓰레기를 팔아 돈도 벌고 있었다. 우리 소양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계획된 소양면 마을교육은 끝났고 동상면 2개 마을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와서 준비 중이다. 지난해 진행했던 마을의 재교육과 모니터링이 논의 중인데 확정된 건 아니다. 환경반장 활동이 주민 교육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일상의 환경지킴이가 되려고 한다.

당부 한마디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마을 일을 맡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마을 쓰레기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마을주민들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배운 바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자신은 물론 자손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 환경반장이 완주군 전 읍면으로 확대될 수 있게 완사넷과 행정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



비봉면 원소농마을 김정희 이야기

## 늙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남편(故 배병운)이 사용하던 카메라를 들고 추억에 잠긴 김정희 할머니.

몇 해 전,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에서 김영옥 선생님이 진행하신 ‘노년되기: 나이 들에도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시골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젊은이지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생애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때였다.

나이 들은 전환과 이동의 과정이다. 늙어가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지평을 따라 수평적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여정일 수 있다.

그동안 만난 다양한 어르신들 삶의 모습을 차곡 차곡 내 안에 쌓아 두고 있다. 그들이 그저 평범하다고 말하는 삶이 우리에게 언제든 꺼내 읽을 수 있는 책이자 나침반이다.

비봉면 원소농마을 초입의 선명한 초록색 대문집이 김정희(1943년 생) 할머니의 집이다. 주황색 나리꽃과 노란색 루드베키아꽃이 마당

한가득 피어있다. 그 사이에 빛나는 은빛 머리의 정희 할머니가 서 계신다. 앞마당에는 좋아하는 꽃을 심고 뒷마당에는 즐겨 먹는 작물을 심어 놓는다 하셨다. 2007년 원소농마을로 귀촌하기 전까지 평생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 와서 흙을 만지려니 모르는 것투성이였다.

### 농사초보에서 마을이장이 되기까지

“내가 손이 진짜 예뻐는데 요령 없이 힘으로 풀을 뽑으니, 관절이 굵고 손이 금방 변하더라고요. 이곳은 애들 아버지 고향이었어요. IMF 때 미국으로 가서 12년 동안 살다가 2006년 11월에 한국 들어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팠죠. 그때 병원에 보름 동안 입원하면서 서울보다 공기 좋은 시골에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권해서 2007년 5월 1일 비봉으로 온 거예요. 참 다이나믹하게 산 것 같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김정희 할머니는 2015년부터 3년간 원소농마을 이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그 시절, 외지인으로서 특히 여성 노인으로서 가장 직책을 수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비결을 묻자, 일단은 자신이 이 마을의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 중앙초등학교, 전남여중, 전남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대학교 졸업 후 교사생활을 했으니 그 시절에 태어난 여성으로서 최고의 교육과정을 밟아 온 셈이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모르는 것투성이였다. 그 시절 원소농마을 사람들이 정희 할머니에게는 전부 선생님이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쫓아다니며 물어보고 주민들의 도움으로 텃밭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 시절을 겪고 나니 자연스럽게 한동네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협심이라고 한다.

“제가 광주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의협심이 있어요. 제가 1970~80년 무렵 강남 살 때 아파트 회의하는데 잘못된 것을 못 봐요. 참지 않고 말하죠.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부녀회장을 시키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부녀회장 통해서 선거운동 하는데 저는 그거 가만히 두고 안 보죠. 딱 거절했죠. 부녀회장은 맡은 바 일을 하면 되지 정치하는 남자들 밑에서 보좌하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나서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대신 전달하고 해결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 이장일도 겁나지 않았어요. 모르는 농촌일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서 했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제 선생님이에요. 그때 획기적이었던 것은 모두에게 이름이 탄생한 거예요. 마을 회의할 때 저는 이름으로 다 불러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미련 없이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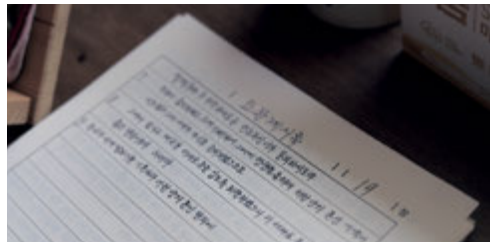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인천에서 교사생활을 했고 남편을 만나 아들 둘을 낳고 평탄하게 살아가던 중 IMF를 겪으며 무역회사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홀연히 떠난 정희 할머니는 그 시절을 겪지 못했다면 비봉면에서의 새로운 삶도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한다.

“제가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평탄하게 살았지만 제 스스로가 우월한 건 아니거든요. 나름 최고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미국 가 보니 최고가 아니지. 배울 만큼 배우고 갓출 만큼 갓추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지. 말도 할 줄 모르지 하나부터 열까지 뒤쳐지는 걸 경험했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 와중에 믿음의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검은 피부도 있고 하얀 피부도 있고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미국 살 때 일한 만큼 벌고 떼떽하게 살았죠. 평탄하게만 살아왔더라면 이곳에 내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식당, 세탁소, 수영장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그 경험이 참 좋았어요. 12년 살면서 일했으니 영어도 많이 늘었죠.”

누구나 영화처럼 반짝이는 순간을 바라지만, 정작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크고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흐르는 평범한 하루들 아닐까.



1960년 후반 가족들과 함께(가운데 흰모자 쓴 이가 김정희 할머니), 남편과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 서울 아파트 부녀회장 시절 첫째 아들과 함께.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김정희 할머니의 서재, 김정희 할머니 서재의 책들, 이른 새벽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필사한 원고들.

“누구나 극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내가 살았던 삶은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항상 미련이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 시간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제 또래 사람들에게 작은 돈 아끼지 말라고 해요. 그럼 돈은 언제 써요? 그래서 나는 평생 모은 돈 쓰고 살았어요. 그때그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해요. 누가 20대 30대를 준다고 해도 나는 싫어요.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요. 지금이 좋아요.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김정희 할머니의 정갈한 서재에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고(故) 배병용 선생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별이 잘 드는 책상, 그곳에서 글을 쓰던 남편의 자리에 앉아 김정희 할머니도 조용히 글을 쓴다. 이른 새벽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정성스럽게 필사한 원고가 한가득 쌓여 있다. 한글자씩 세기며 더불어 사는 삶, 사랑에 대한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있다.

그 서재에서 나에게 줄 것이 있다며 무언가를 한참 찾으신다. 묵직한 가방을 건네서 열어보니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남편이 쓰던 건데 나는 필요 없으니 대신 사용해 주세요. 좋은 세상이잖아요. 이 카메라 들고 온 세상을 누리고 다니세요.”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신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의 문화예술인들

12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한다.



마음의 결을  
담은  
글씨를 찾아

서예가 김채리

서예는 점과 획으로 구성된 문자의 형태와 그 의미를 붓과 먹으로써 전하는 예술이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로 삶을 기록하는 수단이자, 조형예술로 발전한 한글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서예가 김채리 씨는 더욱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30대 초반, 여느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나이지만 그의 삶은 남다르다.

붓과 먹, 화선지라는 전통의 도구를 통해 오늘의 감정과 사유를 기록하는 서예가, 김채리 작가.

그가 말하는 '글씨를 쓴다는 것', 그리고 젊은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기쁨, 치열한 하루에 대해 들어보았다.

**예술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소소한 경험, 기억의 조각들이 연결되어 언젠가는 꼭 발현되더라고요. 작가님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 반 친구들이 자기 노트를 가져와서 ‘ㄱ, ㄴ, ㄷ, ㄹ’ 한글 자음을 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제 글씨가 예뻐서 따라서 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새학기가 되면 새로 나온 교과서를 저에게 들고 와서 이름 써 달라는 친구도 많았죠. 저는 늘 네임펜으로 친구들 이름 써주는 아이였어요. 학창 시절에는 맨날 서기였어요. 회의록 작성하는 서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꿈을 물어보면 늘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대학 졸업 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취미로 서실을 다니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제일 먼저 알아본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림, 글씨 쓰는 걸 좋아하니까 서실을 다녀보자고 이끈 거죠. 그때 나이가 25살 무렵이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냐면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저녁마다 붓글씨를 쓰는 거죠. 일하느라 힘든 시기에도 좋은 글귀를 집중해서 쓰면 고요해지고 위로가 돼요. 새벽까지 매일 썼어요.

**서예가가 되기로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느 날은 글씨만 평생 쓰고 살라고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취미로만 글씨를 쓰다가 공모전에도 내고 상을 타던 시기였어요. 2018년 무렵 전주문화재단에서 신진 청년작가 공모전을 보고 호기심에 신청을 했는데 덜컥 제가 뽑힌 거예요. 그룹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전이었어요. 20점가량의 작품을 혼자 전시해야 하는 넓은 규모의 전시장이었어요. 아직 개인전 할 정도는 아닌데 스스로 고민이 많았죠. 매일 매일 글씨를 쓰던 그 꾸준함으로 작업을 했죠. 전시할 때 호(號)가 있어야 해서 아빠에게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은혜를 더한다는 뜻의 ‘가은加恩’이라는 호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성경 말씀 전시를 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보고 가셨죠. ‘작품을 보면서 위로가 되네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죠. 내 방에 앉아 새벽까지 쓰던 글씨가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이걸 너무 좋은 영향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업하는 과정이 궁금해요.**

글귀를 정하고 구도를 잡아 쓰는 데까지 몇 달이 걸려요. 오랜 시간을 쌓아야 해요. 서여기인書如其人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글씨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글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화난 마음으로는 글씨를 쓸 수 없어요. 글씨는 정직해요.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스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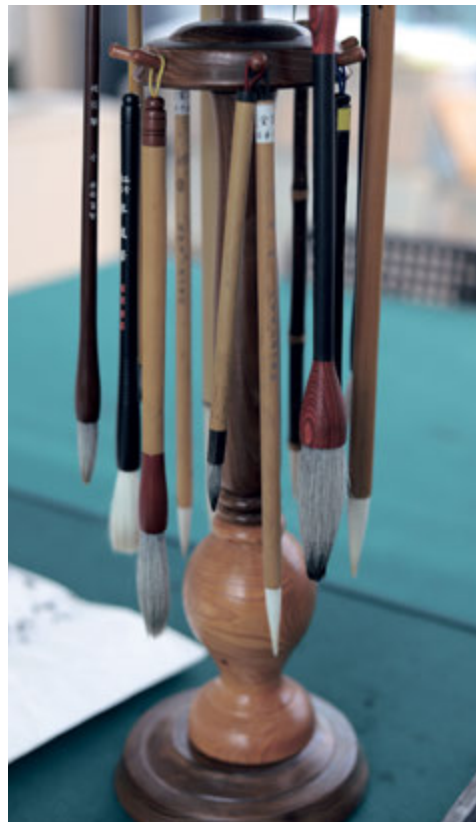
스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작품이 안 돼요. 그래서 먹을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벼루에 먹을 갈면서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붓을 들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화장실도 참아야 해요. 두세 시간은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써내려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예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서예는 원필이에요. 팔과 손의 힘으로 조절해서 한 번의 붓놀림으로 농담(색의 옅고 진하기)을 표현하는 거죠. 붓놀림은 계속 연습하면서 몸으로 습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묵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붓을 코끝에 대고 한참 동안 묵향을 맡다가 연습을 시작하죠. 온종일 묵향을 맡고 있을 때 내가 뻗속까지 서예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웃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찾아가는 한글서예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서예강사로 활동 중이신데 서예 입문자들에게 어떤 수업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서예를 지루하게 느끼곤 했죠. 최대한 친근하게 접근하려고 해요. 먹을 가는 것도 놀이처럼 탐색해보기도 하고, 노래 가사나 친구 이름, 자신의 이름처럼 친근한 문장부터 써보는 연습하는 거죠.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름 쓰는 걸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평생 살면서 내 이름 많이 쓰잖아요. 어딘가에 서명할 때도 쓰고, ‘지금까지 선생님이란 배운 거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내 이름 하나는 잊지 않고 또박또박 정말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 이름만이라도 예쁘게 쓸 줄 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니까 손근육 자체가 발달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서예 수업 요청이 많이 들어 오는 추세예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서예는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글과 함께 사유하며 글씨에 마음을 담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님의 앞으로 계획은요.**

작가로서 내 스타일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어요. 김채리스럽다는 글씨체를 찾아가야죠. 저는 맑고 따뜻한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문인화를 그릴 때도 좀 더 따뜻한 색감을 찾게 되고 날카로운 선 보다는 둥글둥글한 스타일의 글씨를 쓰게 돼요.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힘들 때 좋은 문장을 써내려 가며 받은 위로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말에 개인전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 재워놓고 매일 새벽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결’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엽니다. 제 마음의 결과 같은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고요, 사람들에게도 그 결이 느껴져서 위로와 치유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연재를 마칩니다.



문인화 ‘번치 않는 마음’ 부채, 작가의 붓, 먹과 벼루. 봉동읍 삼봉지구 김채리 작가의 작업실이자 서예공방

## 완주 여기로 모이자!



무더운 날씨에도 웃음 가득한 8월.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시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이자!



###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 꽃, 식물 펜 드로잉 클래스

복잡한 도구 없이 오직 펜 하나로, 꽃과 식물을 그려본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특별한 드로잉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8월 23일 (토) 오후 2시

**모집인원:** 10명

**참가비:** 5,000원

#### 수요 영화데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방앗간으로 모여라! '20세기 소녀', '추락의 해부', '글래디에이터'를 함께 본다.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8월 13일, 20일, 27일 (매주 수) 오후 2시

#### 여름 저속노화밥상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밥상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준다. 느리게 즐기는 저속 노화밥상은 조금 더 천천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8월 14일, 21일, 28일 (매주 목) 오후 6시

**모집인원:** 4명 \*선착순

**참가비:** 5,000원

####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 하자!

**진행정보:** 8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



##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햇살, 그들의 고마움을 느끼는 8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8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8월 16일 (토) 오후 2시	내셔널 트레저	모험	12세 관람가
8월 23일 (토) 오후 2시	더 폴	모험	12세 관람가
8월 30일 (토) 오후 2시	계춘할망	드라마	15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8월 26일 (화) 오후 7시	그을린 사랑	드라마	청소년관람불가



\* 무더위 쉼터 <피서 영화관>

완주미디어센터가 8월 한 달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 '피서영화관'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되며, 무더운 여름 주민들이 시원한 실내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영작은 가족, 청소년, 어르신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상영 일정과 작품 정보는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 제13회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어린이 사생대회 참가자 모집

제13회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에서 어린이 사생대회를 진행한다. 전북도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5~13세)이면 참여가능하다. 고산 자연휴양림 축제 주무대에서 이뤄지며 진행 일시는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자.

**접수기간:** 9월 19일 (금)까지

**접수방법:**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가신청서 다운 후 제출

**품목:** 크레파스화, 파스텔화 8절 도화지(당일 배부)

**작품주제:** 행사당일 발표

**개인준비물:** 개인화구 일체(크레파스, 파스텔, 연필, 지우개, 화판, 돗자리 등)

**문의:** 063-290-2644 삼례도서관

## 동백당 ; 빵집의 사람들 - 완주편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해방 직후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을 8월 14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번 연극은 자본주의가 막 태동하던 시기, 물자 부족과 빛 독촉, 대형 제과점의 등장으로 위기에 처한 근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이 일본인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며 지역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연대하고 희망을 일구는 과정을 그렸다. 공연 시간은 총 16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이다.

입장권은 인터파크 놀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 가능하다. 관람료는 10,000원 완주군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 2025 완주청년맥주축제 "Zoom-beer" 부스 참여자 모집

완주군이 9월 12일(금) 오후 5시 30분부터 열리는 '2025 완주청년 맥주축제' 'Zom-beer'에 함께할 부스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4일(목) 까지이며, 모집 규모는 최대 20개 부스로 먹거리, 체험, 상품 판매(굿즈 등) 부문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단, 접수 상황에 따라 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마을 공동체, 단체 등이며, 완주군 청년 단체 및 공동체, 기업이 우선 선발된다.

참여를 원하면 완주군홈페이지 공고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acejoyful@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이 필요하며, 보건증은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먹거리 부스로 선정된 경우 9월 2일(화) 예정인 간담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보건증 지참이 필수다.

##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배움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완주군이 '평생학습 배움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8월 20일(수)까지이며, 대상은 완주군민과 완주군 내 직장인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플루트 ▲천에 그림 그리기 ▲리본피움 ▲플라워테라피 ▲DTP 목공예 ▲똑똑한 시 ▲챗지피티 ▲영어 동화구연 등 다양한 강좌로 구성됐다.

신청은 이메일(ok79@korea.kr) 접수 또는 완주군 홈페이지 공지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팀(063-290-3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김지원 씀 | 남해의봄날 | 208쪽 | 2023 | 16,000원

### 시골을 살리는 작은 학교



폐교 직전  
되살아난  
서하초의 기적

근래 완주군의 인구가 10만을 돌파했다. 100,229명이라고 한다. 여기저기 축하하는 현수막, 지역지 등 사뭇 고무된 모습을 보며, 인구가 줄어드는 일보단 나은 일이지 한다.

2020년, 폐교 위기에 처했던 시골의 작은 학교가 '주거지와 일자리 알선'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입학설명회를 열었다.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 자리한 서하초등학교다. 당시 함양군은 전체 인구 3만9천여 명으로 4만 선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고, 2025년 현재 3만5천여 명으로 3만 선도 안전하지 않다. 서하초등학교가 있는 서하면의 인구수는 현재 1천2백여 명이다.

그 당시 입학설명회를 연 후 한 달만에 마을에 50여 명의 인구가 늘었다. 50명이라고 하면 도시에선 들고 나는 일이 티도 안 나겠지만, 시골 마을에선 상황이 다르다. 오죽하면 '서하초의 기적'이라고 불렀을까. 남의 일 같지 않다.

현재 완주군 고산면 인구수는 4,289명, 소위 '고산 6개면'으로 보면 1만2천여 명이다. 북부권을 알뜰살뜰 그려모아야 1만 명이 넘는다. 도농복합도시를 표방하는 완주에서 고산면은 가장 시골다운 정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공립현대안고등학교 1개로 한 마을 안에서 학제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주 인구수가 꾸준한 편이다.

그럼에도 혁신초등학교로 새로운 교육환경과 수업내용으로 전국구 '네임드'였던 삼우초등학교도 줄어드는 입학생 수에 동분서주 대책을 찾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몇 가정 이주한다고 마을이 바뀌느냐, 다른 도시에서 아이를 뺏어오자는 거냐 등등 회의적인 의견도 많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판단과 태도로 내가 발 딛고 사는 곳의 일들을 마주할 것인지 자문해보는 일 아닐까.

"정치적 동물인 우리는 예측 가능한 동물이 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 '그럴 필요 없음'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정치적 힘을 주고, 늘 새롭게 행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네드 오거먼, <모두를 위한 정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능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현재를 묵도하고 살피는 일일 테다. 서하초의 사례가 정답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빛나는 미래까지 담보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기적을 만들어가는 서하초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 여정 자체가 저마다에게 일어나는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 림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매일 설레

#74 의외의 사실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살이 안바지는 건... 아마 식단 때문,  
식단을 짜자.



일단 닭가슴살로 단백질.  
탄수화물은 과마!!  
양배추도 식이섬유를...



닭갈비잖아!!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 “챗GPT-AI 프로그램 어렵지 않아요”

완주군공동체아카데미, 활용 교육 호응



지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완주군 공동체 아카데미에서 ‘Chat GPT 및 AI 프로그램 활용 교육과정’이 열렸다.

첫날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Chat GPT의 기본 기능과 활용법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직접 실습했다. 둘째 날에는 미리캔버스를 활용한 카드 뉴스 제작과 캡컷을 이용한 영상 제작 기술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참여자는 “Chat GPT를 비롯한 AI 도구들을 직접 사용해 보니, 평소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 기술이 생각보다 쉽게 다가왔다”며 “특히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카드 뉴스와 영상 제작 등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업무에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을통합마케팅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완전종아\_137\*70cm\_죽지에 수묵채색\_2025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최종우들 우당탕탕 완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 아시아의 감성 민요

###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0) 아길라의 [아낙]



스캔하시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너 태어났을 때/ 세상은 빛으로 가득 찼단다/ 우릴 보며 웃던 너의 눈/ 그 웃음이 세상의 전부였지//....// 그러던 어느 날/ 넌 점점 멀어지고/ 우린 너의 등을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다//....// 이제 와 너는 말하네/ 모든 게 후회된다고/ 하지만 상처 난 마음은/ 쉽게 낫지 않더구나// 그래도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단다/ 돌아오렴, 늦지 않았단다/우리 품은 항상 네 거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프레디 아길라(Freddie Aguilar)의 유명한 「아낙 Anak」입니다. 이 노래는 필리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곡 중 하나이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시대의 명곡입니다.

「아낙」이란 타갈로그어로 자식을 뜻합니다. 이 노래는 부모 자식 간의 기대와 방황, 반성과 회한, 사랑과 용서 등의 사연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율과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도 이런 감정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인류 보편의 죄와 용서, 상처와 회복을 그린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1977년 프레디 아길라는 24세의 무명 가수였습니다. 그는 방황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의 심정을 담아 단순히 이 노래를 썼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 온 가족의 희망이었던 자식이 성장하면서 점점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결국 큰 상처를 주는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돌아온 탕아」를 기꺼이 용서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마치 한 편의 짧은 인생극처럼 흘러갑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절절합니다. 소박한 가사이지만 복잡한 감정을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이 단순한 반성의 노래를 넘어서 다스림의 음악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그 음의 구조와 연주 방식 때문일 것입니다. 다스림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이며 스스로의 분열과 상처를 통합해 가는 과정입니다.

기타 하나로 시작되는 도입부는 속죄의 언어로 가득한 이 노래에 어울리게 단출합니다. 마치 무릎 꿇고 시작하는 기도처럼 군더더기 없는 선율은 오히려 더 깊은 정서를 건드립니다. 아길라의 목소리도 휘황한 기교 없이 조금은 거칠고 녹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정의 진동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화성과 리듬의 구조는 단조롭게 반복되지만 이런 반복이 오히려 침잠과 반성,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곡은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무릎 꿇고 부르며 듣는 노래입니다. 내 안의 어둠과 불화, 잊고 살았던 사랑을 직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수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번안되고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이유는 물론 이런 음악적 요소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과 오해, 이별과 용서는 인류 보편의 주제입

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1970~80년대, 가족 해체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던 시기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아낙」 노래는 어떤 답변 하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두가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이 아낙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낙」은 늦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지나가 버린 말, 상처 입은 얼굴 등, 그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늦은 고백이 반드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늦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다스림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우리들 삶이란 늦더라도 다시 돌아가 이름을 부르는 일임을 이 노래는 오늘도 말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길라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아시아 대중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고 민중의 아픔을 노래한 그는 필리핀 현대사를 함께 호흡한 예술가였습니다. 독재정권에 맞서고 빈곤과 불평등, 부정부패 등을 비판하는 포크 록, 프로테스트 송(Protest Song)의 주역이었습니다. 1980년대 마르코스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나의 조국」(“Bayan Ko”)은 우리의 「아침이슬」처럼 필리핀 민주화운동의 상징과 같은 노래입니다.

이 「아낙」 들으시며 부모님께 그리고 아들딸에게 전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 소식

#### 삼례책마을에서 만나는 한 세기 책 디자인 변천사

완주군 삼례책마을이 1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책의 얼굴 - 한국 북디자인 100년’ 전시를 연다.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 130여 종의 귀한 도서를 통해, 한 세기 한국 책 디자인의 변천과 예술적 가치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책가의’ 개념에서 출발해, 근대 출판의 전환점이 된 1884년 <충효경집주합벽>을 기점으로 100년에 걸친 한국 북디자인의 흐름을 실물 자료로 조망한다.

특히, 박대헌 관장의 저서 <한국 북디자인 100년

>(21세기북스, 2013)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이상이 장정한 김기림 시집 <기상도>(1936), 김용준이 디자인한 이태준 <달밤>(1939), 김환기가 장정한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55) 등 1920~1970년대 문학서, 시집, 교양서 등 130여 종의 북디자인 도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김영혜의 **영화산책**

(7) 개같은 내 인생 My Life As A Dog

어린 시절에 입은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때때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심성과 기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오래된 스웨덴 영화의 주인공 잉마르는 열 살 남짓한 나이에 참으로 힘든 일을 겪는 셈이니, 이 아이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영화가 끝날 즈음이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감돌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잉마르는 스웨덴 어느 소도시에서 엄마와 형과 살고 있다. 아빠는 안 보인다. 잉마르가 친구에게 들려주는 말에 의하면 아빠는 아프리카 어디쯤에서 바나나를 옮기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엄마는 폐결핵을 앓고 있다. 몇 살 터울 위인 형은 잉마르를 구박하고 놀리고 편잔을 주기 일쑤이다. 주눅 들고 우울해야 마땅할 것 같은 이 아이는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차 있는 못 말리는 말쑥꾸러기이다. 잉마르는 아픈 엄마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거의 매일 기상천외의 말쑥을 일으키다 보니 늘 엄마에게 히스테리 원인만 제공한다.



라세 할스트롬 감독, 안톤 글라젤리우스 주연, 스웨덴, 1985

우리가 흔히 '결손가정'이라고 부르는 환경 속에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보니 잉마르는 시카라고 불리는 작은 강아지에게 이런저런 속마음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 속삭임이 참 철학적이다. 잉마르는 소련이 무인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날려보낸 개 라이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덧붙인다. "난 그래도 비교적 행운아인 셈이야. 우린 늘 처지를 비교하면서 살아야 해.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거든."

엄마의 병이 위중해지자 형과 잉마르는 각각 다른 친척집에 맡겨지게 된다. 시골마을의 삼촌집에 오게 된 잉마르는 거기서 마을 아이들과 친해지고 유쾌하고 낙천적인 삼촌 내외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럭저럭 잘 견디어나가는 듯했지만, 끝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개 시카마저 어

딘가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다. 잉마르를 달래는 삼촌에게 아이는 울면서 부탁한다. "내 탓이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아아, 이 아이는 그 모든 슬픔과 불행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영화가 끝나버렸다면 참 가슴 아팠을 것이지만, 유쾌하고 떠들썩한 이 시골마을에는 늘 모두를 흥분시키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살짝 정신이 온전치 못한 동네 아저씨가 한겨울 얼음물에 수영하러 들어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 이 남자를 구하기 위해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 소동을 따라다니느라 어느새 잉마르도 눈물이 마른다. 평온을 되찾은 것도 잠시, 온 마을 사람들이 스웨덴 권투선수의 승리에 기뻐 날뛰며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잉마르는 여자친구와 함께 권투중계를 듣다가 둘 다 췌근췌근 단잠에 빠져 있다.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연기를 보여준 안톤 글라젤리우스(잉마르)는 아역배우로서는 매우 드물게도 스웨덴 아카데미상에서 주연배우상을 받았다.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 마을 소식

## 완주미디어센터 제7회 품앗이상영화... 8개 읍면서 독립영화 상영

영화로 마을을 잇는 '품앗이상영화'가 올해도 완주 곳곳에서 열린다.

완주군이 이달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7회 품앗이상영화'를 개최한다.

품앗이상영화는 완주미디어센터(센터장 안충환)와 읍면 문화시설 및 주민공동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상영프로그램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독립·예술영화를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여름이 지나가면>, <봄밤> 등 총 5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각 작품은 세대별·계층별 관심사

와 정서를 고려한 작품들로 지역 주민 누구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11일 삼례읍 하리 용전마을에서 <아침바다 갈매기는>을 시작으로 14일 구이면 완주군평생교육아카데미 <플로우>, 20일 이서면 따라쥬문화교육협동조합 <봄밤>, 26일 화산면 청춘대학 <아침바다 갈매기는>, 28일 용진읍 모아미래도아파트 <아침바다 갈매기는>, 29일 소양면 소꿈사사회적협동조합 <플로우>, 9월 9일 상관면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여름이 지나가면>, 9월 11일 동상면 학부모모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까지 총 8개 읍면에서 순

차적으로 진행한다.

품앗이상영화는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공동체 중심의 문화 향유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지역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영작 선정부터 공간 준비, 진행까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지는 점도 눈에 띈다.

완주군 문화역사과는 "올 상영회에도 어르신,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학부모, 돌봄교사 등 다양한 주민이 함께한다"며 "문화로 소통하며 지역사회가 따뜻하게 연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문의 063-262-1895(완주미디어센터)

## 한여름 예초작업

농/촌/별/곡



차 남 호

요 며칠 더위가 한풀 꺾였다. 한 달 넘게 폭폭 썰 대던 극한 폭염을 생각하면 선선한 느낌마저 드는 게 벌써 가을로 접어든 기분이다. 물론 한낮으로는 꽤 더운 편이지만 여름이 늘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진다. 뒤꼍을 울리는 매미 소리가 평화롭기만 하다.

어제부터 논둑 우거진 풀을 예초기로 베어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짓는 논배미가 꽤 되는지라 며칠 걸리는 작업이다. 한여름 예초는 몇 년 만에 처음이다. 작업이 워낙 힘겨워 어느 해부터가 아예 포기했더랬다.

적어도 한해 세 번은 논둑을 쳐줘야 한다. 모내기를 앞두고 기계작업이 수월토록 하고, 한여름에는 한껏 우거진 수풀을 치우며, 가을걷이를 앞두고는 수확기(콤바인)가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여름 피약벌 아래 예초기를 돌리기란 고

역이 아닐 수 없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땀으로 목욕을 하고 탈진 상태에 빠지니 그야말로 극한작업이라 하겠다.

생각 끝에 몇 해 전부터 한여름 예초작업을 건너뛰어 왔던 것. 그 경우 논둑 바로 옆 벼포기가 수풀에 치여 자라지 못하는 손실이 생긴다. 그래도 며칠에 걸친 극한의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그리 나쁠 건 아닌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여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쭉쭉 자라 풀들이 그야말로 정글을 이룬다. 그렇게 가을로 이어지면 수풀은 뻣뻣이 우거질뿐더러 쇠심줄처럼 질겨진다. 그 상태에서 수확을 앞둔 예초작업은 극심한 노역이 된다. 예초기 날이 잘 먹히지 않는 데다 질긴 풀줄기에 자꾸만 얽혀 작업이 끊기기 일쑤다. 그러니 들이는 품과 작업시간이 두세 곱절 넘게 든다. 결국 손해보는 장사인 셈이다.

하긴 세상일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그래 올해부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한여름 예초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문제는 극한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술을 줄여서 그나마 덜 더운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 한두 시간이라도 예초기를 돌리겠노라. 여러 사람 앞에서 공언을 해둔 터다. 그런데 때마침 더위가 한풀 꺾였으니 이야말로 천우신조 아닌가.

논둑예초 얘기가 길어졌다. 요컨대 기후위기로 여

름 더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이야 선선한 기운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지만 최고기온이 썩썩 37도를 찍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이다.

그 속에서 네댓새 김매기를 했다. 35도를 웃도는 고온이 한 달 넘게 이어지니 봉실산 아래 논배미에 여뀌바늘이 올라와 쭉쭉 자라났다. 마침 중간 물떼기 기간이라 논바닥이 굳는 바람에 잘 뽑히질 않아 낮으로 베어내야 했다. 물론 낮에는 엄두도 못 내고 이른 아침 한두 시간. 8시만 넘어도 대지가 후끈 달아오르니 도망치듯 물러서야 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더위와 씨름하느라 기진맥진. 이따금 탈출구가 없지 않았다. 완주미디어센터가 마련한 '피서영화관'에서 두어 시간 더위를 식히는 날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횡재를 하기도 했다.

"에어컨 없이 더위와 싸우는 '독거노인'을 위해 시원한 맥줏집에서 '대작 보시' 해주실 분!"

"기후변화로 무더위가 심각하긴 하네요. 이 더위에 바다낚시 간 남편이 문어를 꽤 낚은 모양이에요. 맥줏집 대신 저희집에서 문어파티~ 어때요?" 그런데 장기 일기예보는 극한 폭염이 다시 찾아와 9월까지 이어질 거란 우울한 전망이다. 엇그제 벼대를 뽑아 해부해보니 이삭을 배고 있다. 폭염 속에 이삭이 꽤면 소출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보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더 문제지. 이래저래 심란한 여름이다. 비봉 염암마을

### 완주군의회 소식

## “군민 71% 반대” 행정통합 논의 즉각 중단 요구

### “자치와 복지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최근 완주·전주 간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군민 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즉각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8월 1~2일 완주신문 의뢰 데일리리서치 조사에서 완주군민의 71.0%가 통합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찬성은 25.9%에 불과했다. 모든 권역별로도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복지혜택 감소(26.8%), 혐오시설 이전 우려(21.2%), 예산 감소

(18.1%), 지역 소멸 우려(17.6%) 등이 꼽혔다. 앞서 7월 23~24일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서도 반대 65.0%, 찬성 30.7%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으며, 응답자의 97.8%가 통합 논의 사실을 인지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완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군민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행정통합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군민 자치권과 복지권, 지역 정체성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군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데도 일방 추진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며 자치 훼손”이라며 “통합은 군민 동의와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원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주최  완주군

주관 와일드&로컬푸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